

호계원장 성타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

‘알파고’도 이길 수 없는 건 ‘마음’

심리학계 저장 장현갑 교수 “기체는 사람 마음 파악 못해”

205회 임시총회 5일 회기로 개회
무산·원각스님 대중사동의인 가결
2015년 결산승인 등 25안건 채택

조계종단의 기강을 관장할 호계원장에 성타스님(동국대 이사장직무대행), 전법과 포교총책을 이끌 포교원장에 지홍스님(불광사 회주)이 각각 선출됐다. 호계원은 총무원, 중앙총회와 더불어 3부 기관으로 사법을 담당하며, 포교원은 총무원, 교육원과 함께 종단의 주요 종책을 입안·수행하는 3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총회는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5일간의 회기로 개회한 제205회 임시회에서 호계원장과 포교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호계원장 성타스님은 선출 직후 본회의장을 찾아 “부덕한 소남을 호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종단의 기강을 엄정히 세워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전력을 나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포교원장 지홍스님도 “포교와 전법, 교화와 수행의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생각한다”며 “시대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종도들의 기대와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전법의 수레를 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중앙총회는 무산스님(신홍사 조실)과 원각스님(해인총림 방장)의 대중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불기 2559년 중앙총무기관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5일 열린 제205회 중앙총회 임시회 인사말을 통해 임기 3년차 소회를 밝히면서 “종단 소임자 모두가 초심과 공심으로 인재육성 등 당면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15일 오후12시 현재)

앞서 중앙총회의장 성문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종단도 그동안 점철되었던 반목과 갈등의 역사에서 원용과 대화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그를 위한 중앙총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불교계 내외의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한편 종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입법화에 적극 나섬으로써 진정한 종도들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요즘 초심과 공심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있다”며 “소임기

간 동안 종단 발전과 불교중흥의 기틀을 닦겠다는 목표에 얼마나 이르렀는지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임기 3년차의 소회를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재정적 기반 마련, 준비된 인재 육성 등 당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종단 소임자 모두가 초심과 공심으로 이런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중앙총회의원의 겸임 규제를 완화하는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10개 종별개정안과 각종 인사관련 안건, 불기2559(2015)년도 중앙총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 승인, 한전부지 환수 결의문 채택 등 모두 25개 채택 안건을 다루게 된다. 박봉영 기자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동참 열기 뜨겁다

사전등록만 전년대비 3배 ↑

외국인·청소년도 관람 문의 쇄도

불교종합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더니 올해는 사전등록만 전년 대비 3배수가 넘는 인원이 대거 접수하는 등 참가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단체별 참가주문이 쇄도하고 있어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상업적 틀을 벗고 명실공히 불교문화와 불교산업의 아우르는 축제화 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는 24일 개막하는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14일 현재 사전등록 현황만 3500여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통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에 박람회조직위는 계층별 눈높이에 맞춰 야외에 20여개의 체험부스를 설치해 천연염색, 떡 만



지난 14일 서울 불광산사 주지 의은스님이 박람회 포스터가 붙여진 사찰입구에서 박람회 관계자와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불광산사는 한국 대만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박람회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들기, 종이 꽃 만들기, 종이로 한복 가드집기, 오색실 팔찌 만들기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한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모든 야외체험을 무료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불교박람회가 점차 국제화되면서 박람회 관람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25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국 사민의 바이어들은 박람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구매상담을 벌이며, 중국 도교문화 다인협회는 박람회 공연장에서 다례시연을 펼친다. 일본 사찰의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한국불교의 아제와 오늘을 한 자리에서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는 박람회에서 참여하는 박람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박람회장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들었던 청소년들도 박람회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활약한다.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는 오는 27일 박람회장 3관에서 서울 조계사, 봉은사, 옥전암 등 수도권 사찰 청소년법우 300여명이 참석하는 청소년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법회 후에는 창작랩공연과 난타공연이 사찰별 장기자랑과 어우러져 박람회장은 젊은 열기로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13면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서

“잘못된 과거 바로잡는다”

1970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강제 수용된 봉은사 소유 10만평을 환수하고 철거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제1차 한전부지 환수기원법회가 봉행된다.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법회를 열고, 강제수용에 따른 원전무효와 서울시가 추진중인 옛 한전부지 관련 개발 인허가 절차의 즉각적인 종단을 요구한다.

이날 기원법회는 사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총무원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총무원을 비롯, 조계사·봉은사 등 서울경기관 사찰 주지 스님 및 불자 등 참가 대중들은 조계사에 집결해 서울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어 본행사는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봉행사, 대회사, 연설, 결의문 낭독, 정근, 시청 주변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환수위원회는 옛 한전부지 개발 인허가 절차 진행의 즉각 종단을 촉구하기 위해 잇따라 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환수위는 지난 10일에 이어 14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재차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환수위는 환수 기원법회를 통해 국가권력의 부당함을 알리고 봉은사 토지 환수에 총력을 모을 전망이다. 환수위는 면담 결렬 직후 서울시청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정부는 서로 공모해 1970년 9월 상공부 청사 이전이라는 명분으로 봉은사 소유 토지 10만평을 강제 수용했으나, 이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수용자제도 원인무효이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 한전부지 개발 관련 인허가의 종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수위는 대화로 해결하고자 서울시청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인내심을 갖고 다시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23일 서울광장에서 부당하게 강탈당한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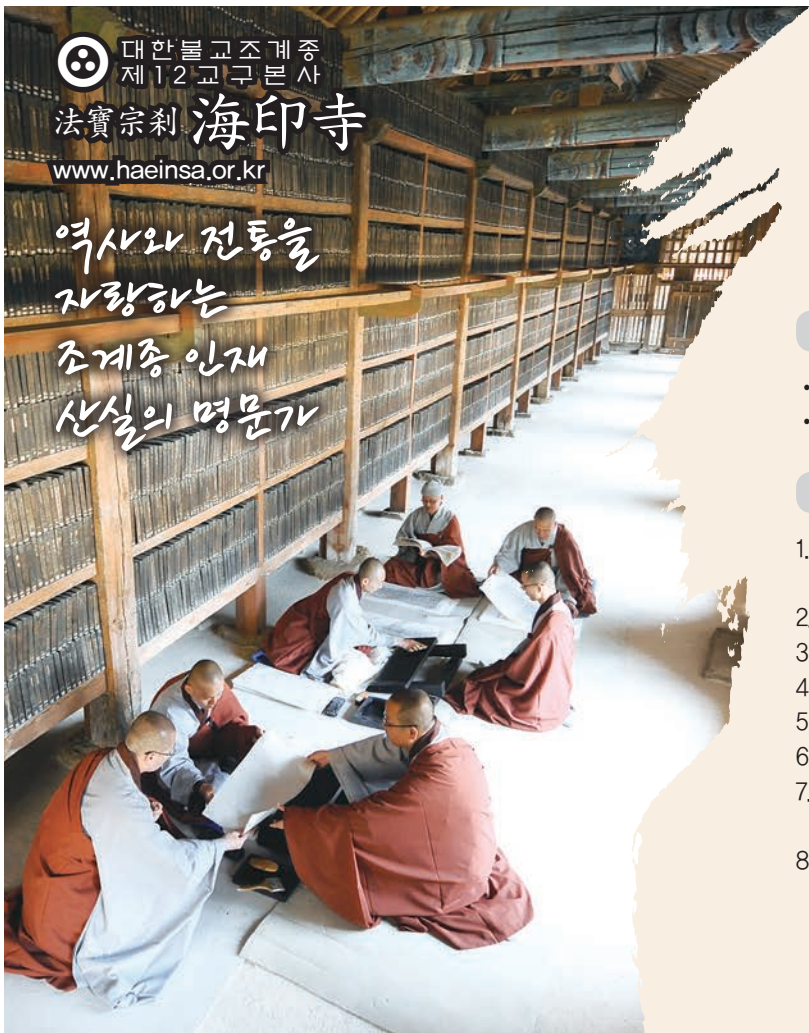
환수위 대변인 김봉석 변호사는 “옛 한전부지 환수를 통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철거한 진상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2차, 3차 법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좌번호고조계종사무처)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해인사 승가대학 입학안내

모집대상

- 편입생, 재입학생 : 2학년 0 명
- 신입생 00 명

구비서류(해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 입학원서..... 1부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해인사에 와서 안내에 따라 작성)
2. 자기소개서(자필-6하원칙)..... 1부
3.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총무원 발급).....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본적 확인용)..... 각 1부
5. 건강진단서(행차교육원 당해연도 수료자 제외)..... 1부
6. 은사스님 추천서 1부
7. 은사스님 인적사항(법명, 본명(한글·한자), 당호, 주민등록번호, 승적번호)
8. 승가대학 학력 이수 증명서(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준비물

1. 사진(3x4, 만의가사 복장) 3매, 여권사진 2매(여권발급용)
2. 대가사(사미는 만의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정(법명)
3. 주민등록 주소 이전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22 해인사승가대학(필수사항)

전형방법

- 서 류 접 수 : 불기2560(2016)년 3월 23일(수요일)까지
- 입학감마 일시 : 불기2560(2016)년 3월 24일(목요일) 오전 8시
- 합격자 발표 : 불기2560(2016)년 3월 24일(목요일) 오후 6시
- 입 학 식 : 불기2560(2016)년 3월 25일(금요일)

특전

- 신입생의 해외 성지순례를 통하여 신심과 원력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선택과 필수로 나누어 매주 2회 시행함.

• 하나조노대학(일본), 법고산대학(대만), 칭화대학(중국)은 학술 교류 협정을 통해 졸업자(교졸 동등 학력자 포함)에게 대학원 진학의 기회 우선 제공. (영어권과의 학술 교류도 추진 중)

해인승가대학 특징

- 전산 교육 시행 : 사찰 가람지기 교육, 세계 불교 데이터베이스 현황 교육,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현대와 전통의 균형 있는 교육.
- 최신 장비를 갖춘 책역 단원실 및 잔디구장에서 책역관리 가능.
- 도서관 : 전통사찰 최초의 도서관이며 최대의 장서와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검색 시스템 완비.
- 6명의 상주 교수사 스님들에 의한 전통 교육 및 내실있는 현대적 교육 시행.

문의처

50200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22 해인사승가대학
전화 (055) 934-3081, 3100
학감스님 (055) 934-3046, 010-3642-8106